DBpia

레위기 16장을 중심으로 한 아사셀의 정체에 관한 재조명

The Identity of Azazel Revisited : Centered on Leviticus 16

저자 (Authors) 이충열, 하계상
Choong Ryoel Lee, Kye Sang Ha

출처 (Source) 신학논단 91, 2018.3, 175-205 (31 pages)
Theological Forum 91, 2018.3, 175-205 (31 pages)

발행처 (Publisher) 연세대학교 신과대학(연합신학대학원)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Theology & the United Graduate School of Theology

URL http://www.dbpia.co.kr/Article/NODE07436695

APA Style 이충열, 하계상 (2018). 레위기 16장을 중심으로 한 아사셀의 정체에 관한 재조명. 신학논단, 91, 175-205.

이용정보 (Accessed) 삼육대학교
210.94.252.***
2018/12/21 11:37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신학논단 제91집 (2018. 3. 31): 175-205

레위기 16장을 중심으로 한 아사셀의 정체에 관한 재조명*

이충열** · 하계상***

I. 문제의 제기 및 연구 방법의 진술

레위기의 문학적 구조에서 레위기 16장은 정중앙에 위치하며, 이는 고대 이스라엘의 정결 예식으로서의 속죄일 예식이 어떤 다른 예식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1] 또한 레위기 16장의 교차대구 구조는 속죄일의 핵심이 바로 정결(כָּפַר 카파르)에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16:16-20a).[2] 속죄일의 핵심 예식은 두 염소 예식, 즉 '야훼를 위한 염소

* 이 논문은 제104차 한국구약학회 춘계학술대회(2017.6.28.)에서 발표했던 것을 부분적으로 수정 보완한 것이다.

** 삼육대학교 구약학 박사과정 대학원생

*** 삼육대학교 신학과 교수, 구약학

1) William H. Shea, "Chiastic Structure of Leviticus," in *The Seventy Weeks, Leviticus, and the Nature of Prophecy*, vol. 3, ed. Frank B. Holbrook (Washington D. C.: Biblical Research Institute, 1986), 149.

2) 로드리게(Angel M. Rodriguez)가 제시한 레위기 16장의 교차대구 구조는 다음과 같다. "여

삼육대학교 | IP: 210.94.252.*** | Accessed 2018/12/21 11:37(KST)

예식'과 '아사셀을 위한 산 염소(live goat) 예식'이 있는데, 후자는 여러 복잡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는 '아사셀'(Azazel)의 정체[3]나 '아사셀을 위한 산 염소(live goat) 예식'의 의미에 대해서 학자들 사이에 서로 일치된 의견이 없고 여전히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유이다.[4]

아사셀이 히브리어 성경에서 총 4번[5] 레위기 16장에서만 언급되기 때문에 그 정체를 구약 성경 안에서만 밝히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이로 인하여 일부 학자들은 아사셀에 대한 논의를 제쳐두고 '산 염소' 예식에만 초점을 맞추어 그 의미를 추적하기도 했지만,[6] '산 염소'는

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A, 아론은 아무 때나 지성소로 들어가서는 안 됨(2절): B, 아론의 희생제물과 특별한 의복(3-4절): C, 백성이 제공한 희생제물(5절): D, 아론의 수송아지, 야훼를 위한 염소, 아사셀을 위한 염소(6-10절): E, 아론이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림(11-14절): F, 이스라엘 공동체의 염소가 속죄제로 드려짐(15절): G, 속죄를 이룸(16-19절):: G′, 속죄가 끝남(20a절): F′, 아사셀을 위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염소가 광야로 보내짐(20b-22절): E′, 아론의 마무리 활동(23-25절): D′, 아사셀을 위한 염소, 아론의 수송아지, 속죄제 염소(26-28절): C′, 백성들이 안식하고 자신들을 낮춤(29-31절): B′, 기름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특별한 옷을 입고서 예식을 거행함(32-33절): A′,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매년 한번 속죄를 이룸(3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대로" ("Leviticus 16: Its Literary Structure," *AUSS* 34 [1996], 283).

3) 아사셀의 정체에 대한 견해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눠진다(존 하틀리/김경열 옮김, 『레위기』, [서울: 솔로몬, 2006], 504-6; Aaron Pinker, "A Goat to Go to Azazel," *JHS* 7 [2007], 4-12). 첫째, 아사셀은 염소를 묘사하는 단어, 즉 '떠나는 염소'(scapegoat)이다. 둘째, 아사셀은 장소에 대한 표현[거친 절벽]이거나 그 장소의 이름을 가리킨다. 셋째, 아사셀은 추상적 개념으로서 전적인 제거(entire removal)를 의미한다. 넷째, 아사셀은 광야의 마귀 혹은 마귀 자신[사탄]을 가리킨다.

4) 에를리히(Arnold B. Ehrlich)는 아사셀이 누군지는 아무도 모르며 학자들이 말하는 바를 과연 신뢰할 수 있는지를 지적하였는데, 이는 아사셀이 쉽지 않은 문제라는 것을 잘 보여준다 (*Mikra Ki-Pheshuto: The Bible According to Its Literal Meaning* [New York: Ktav, 1969], 1: 227은 Pinker, "A Goat to Go to Azazel," 2에서 인용한 것임.)

5) 레위기 16장 8, 10(2번), 26절.

6) 예를 들면, Eric Gilchrest, "For the Wages of Sin is Banishment: An Unexplored Substitutionary Motif in Leviticus 16 and the Ritual of the Scapegoat," *EQ* 85 (2013), 36-51; Yaw Adu-Gyamfi "The Live Goat Ritual in Leviticus 16," *Scriptura* 112 (2013), 1-10.

삼육대학교 | IP: 210.94.252.*** | Accessed 2018/12/21 11:37(KST)

'아사셀을 위한' 염소이기 때문에 아사셀의 정체를 규명하지 않은 채 그 예식의 의미 및 '카파르'와의 관련성을 규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아사셀이란 용어를 어원론적, 어의론적, 언어학적으로 연구하거나,[7] '아사셀을 위한 산 염소 예식'을 고대 근동의 예식[8] 또는 위경 및 전통적인 유대인의 해석을 통해 고찰하면서[9] 그 정체와 그 예식의 의미를 밝히고자 했다. 이런 접근들은 성경 외의 자료를 통해 아사셀의 정체를 추적하였고 그 결과로 레위기 16장 본문 자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소홀하게 되었다. 따라서 아사셀이 등장하는 레위기 16장 본문 자체에 대한 연구, 그리고 상호관련성이 있는 다른 본문들과의 간본문적 해석(intertextual interpretation)을 통하여 아사셀의 정체를 밝히는 것이 본 논문의 목표이다. 이 목표를 염두에 두고 공시적/문학적 관점에서 BHS의 히브리어 본문에 기초하여 연구를 진행하겠다.

---

7) H. Tawil, "Azazel, the Prince of the Steepe: A Comparative Study," *ZAW* 92 (1980), 43-59.

8) David P. Wright, *The Disposal of Impurity: Elimination Rites in the Bible and in Hittite and Mesopotamian Literature* (SBLDS 101; Atlanta: Scholars Press, 1987), 25-30; Ida Zatelli, "The Origin of the Biblical Scapegoat Ritual: The Evidence of Two Eblaite Texts," *VT* 48 (1998), 254-263.

9) Lester Grabbe, "The Scapegoat Tradition: A Study in Early Jewish Interpretation," *JSJ* 18 (1987), 152-167; Robert Helm, "Azazel in Early Jewish Tradition," *AUSS* 32 (1994), 217-226; 에녹서를 중심으로 한 연구는 다음을 참고하라. George W. E. Nickelsburg, "Apocalyptic and Myth in 1 Enoch 6-11," *JBL* 96 (1977), 383-405; Paul D. Hanson, "Rebellion in Heaven, Azazel, and Euhemeristic Heroes in 1 Enoch 6-11," *JBL* 96 (1977), 195-233; William H. Shea, "Azazel in the Pseudepigrapha," *JATS* 13 (2002), 1-9; 요셉의 이야기를 속죄일에 연관시키는, 희년서를 기초로 한 연구는 다음을 참고하라. Calum Carmichael, "The Origin of the Scapegoat Ritual," *VT* 50 (2000), 167-182.

삼육대학교 | IP: 210.94.252.*** | Accessed 2018/12/21 11:37(KST)

II. 두 염소에 대한 제비뽑기

아사셀은 레위기 16장 8절에 제비뽑기와 관련하여 처음 등장한다. 제비뽑기를 통하여 두 염소 중 한 염소는 야훼에게, 다른 한 염소는 아사셀에게 배정된다. 우리는 먼저 제비뽑기가 아사셀의 정체를 밝히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연구해 보기로 하자. '제비'로 번역된 '고랄'(גּוֹרָל)을 아랍어 '가발'(*ǧarwal*)과 관련지어 그 기본적인 의미를 '작은 돌'이라고 하는 견해도 있다.[10] 작은 나무 조각이나 다른 물체도 제비뽑기에 사용했다고 하지만, 제비뽑기에 사용된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부족하다.[11] 고랄의 의미와 그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서 적어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속죄일에 구별된 표시가 있는 작은 돌이나 나무 조각[12]을 항아리에 넣어서 흔들었고,[13] 하나님의 지도하에서[14] 대제사장이 제비뽑기를 하였다

---

10) Dommershausen, "גּוֹרָל" in *Theological Dictionary of Old Testament*, eds. G. Johannes Botterweck and Helmer Ringgren (Michigan: William B. Eerdmans Pub., 1975), 2: 450; H. H. Schmid, "גּוֹרָל" in *Theological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eds. Ernst Jenni & Claus Westermann (Peabody, Mass.: Hendrickson, 1994), 1: 310.

11) C. Van Dam, "גּוֹרָל" in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of Old Testament Theology & Exegesis*, ed. Willem A. VanGemeren (Grand Rapids, Michigan: Zondervan, 1997), 1: 825.

12) 다음의 두 영어 역본은 제비에 인식 표시(identification marker)를 했다는 것을 본문에 반영하고 있다: "one lot labeled 'the Lord's' and the other lot labeled 'Azazel's'"(CEB), "using two stones, one marked "for the Lord" and the other "for Azazel""(GNT). 고랄과 관련하여 자주 언급되는, '던지다'를 의미하는 동사를 사용하지 않고 8절에서 동사 나탄(נָתַן/놓다[put])을 사용하고 전치사 알(עַל/위에[upon])을 사용한 것에 주목하여, 8절 본문에서 말하는 바는 제비를 뽑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제비뽑기가 끝난 후 두 제비가 서로 헷갈리지 않도록 '야훼'와 '아사셀'이 적힌 각각의 나무 조각 제비를 두 염소 위에 놓아서 제비가 하나의 인식표시의 기능을 했다는 밀그롬(J. Milgrom)의 해석은 본문의 의미를 잘 밝혀주고 있다(*Leviticus 1-16: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AB 3; New York: Doubleday, 1991], 1019-1020). 이런 관찰은, 두 염소가 서로 다른 개체이듯이 야훼와 아사셀도 서로 다른 개체라는 것을 암시한다.

13) Targum Pseudo-Jonathan의 레위기 16장은 항아리에 제비를 넣은 다음 제비를 뽑았다고

삼육대학교 | IP: 210.94.252.*** | Accessed 2018/12/21 11:37(KST)

는 점이다(잠 16:33).[15]

레위기 16장 8절의 제비뽑기를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서의 제비뽑기 사례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고랄은 구약 성경에서 총 77회 사용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 땅을 분배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민수기와 여호수아에서 33회 사용되었다. 제비뽑기로 어떤 땅이 어느 지파 혹은 어느 가족의 소유가 될 것인지가 결정되었고, 제비로 뽑힌 지파나 가족이 그 해당되는 땅을 소유하게 되었다(민 26:55, 56). 도머샤우젠(Dommershausen)은, 한 그릇에는 여러 땅의 이름이 적혀 있는 제비가 있고 다른 그릇에는 각 지파나 각 가족의 이름이 적혀 있는 제비가 있어서 두 그릇에서 제비를 뽑아 땅의 분배가 이뤄졌을 것이라고 추측한다.[16] 고랄이 여러 번 등장하는 여호수아 18-19장은 두 개의 제비가 한 지파에게 몰리는 경우는 없었고, 한 제비가 한 지파에게만 할당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비록 고랄(제비)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제비뽑기를 이해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용된 동사로 '라카드'(לָכַד)가 있다. 이 동사는 '취하다(take), 잡다(capture), 점령하다(overthrow)'라는 뜻도 있지만, '제비를 뽑다, 추첨하다'(select by lot)란 의미도 있는데,[17] 후자는 하나님이 지도

설명한다.

14) 구약 성경에서 제비뽑기 신탁(The Lot Oracle)과 관련하여 자주 사용된 표현인 "여호와 앞에"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예를 들면, 수 18:6, 8, 10, 등), 이는 제비뽑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인간의 운명을 주관하며 그분의 뜻을 드러낸다는 것을 보여준다(Dommershausen, 윗글, 2: 452).

15) Johannes Lindblom, "Lot-Casting in the Old Testament," *VT* 12 (1962), 168-169; 린트블롬은 헬라 시대, 중세 시대, 현대 아랍 세계 등을 통하여 제비뽑기에 색채를 칠하거나 글자를 새긴 물체를 사용하였다는 증거들을 보여주고 있다(앞의 책).

16) Dommershausen, *TDOT*, 2: 452.

17) Ludwig Koehler and Walter Baumgartner, "לָכַד," in *The Hebrew and Aramaic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Leiden: Brill Academic Pub., 1996), 2:530; 동사 '라카드'가 사용된 대표적

삼육대학교 | IP: 210.94.252.*** | Accessed 2018/12/21 11:37(KST)

자를 선택하거나 범죄자를 가려내는데 주로 사용되었다.[18] 먼저 라카드가 하나님이 지도자를 선택하는데 사용된 사울의 경우(삼상 10:17-24)를 살펴보자.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 모든 백성을 불러 모은 다음 각 지파대로 천 명씩 나오게 하였는데, 여기서 베냐민 지파가 뽑혔다(10:19-20). 각 가족대로 나온 베냐민 지파에서는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다(10:21). 제비뽑기의 과정을 통하여 어떤 사람이 혈연이나 지연 또는 다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으로 된다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한 제비는 선택 받은 한 대상만 지목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다음은 라카드가 범죄자를 가려내는데 사용된 요나단의 경우이다(삼상 14:24-46)[19]. 요나단은 진영 중에 없었기 때문에 음식을 먹지 말라는 사울의 명령을 알지 못했고 그 명령을 다른 병사를 통해서 들었으며 그런 불합리한 명령을 내린 왕을 탓한다(14:28-30). 사울은 블레셋을 동틀 때까지 추격해도 되는지 하나님께 묻지만 아무런 답이 없자 결국 이를 초래한 죄가 누구에게 있는지 추적한다. 한편에는 사울과 요나단, 다른 한편에는 백성이 서 있다. 제비를 뽑자 사울과 요나단이 뽑혔다(14:41)[20]. 사울과 요나단 사이에서는 요나단이 뽑혔다(14:42). 결국 요나단은 자신이

인 성경 구절은 다음과 같다: 수 7:14, 15-18; 삼상 10:20; 14:41.

18) Dommershausen, *TDOT*, 2: 454.

19) 아간의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범죄자 아간은 충분히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것을 무시하고 자기가 제비로 뽑힐 때까지 기다렸다. 지파들 중에서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지파에서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 중에서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중에서 아간이 뽑혔다(수 7:14-18). 이런 과정을 통하여 결국 아간이 범죄자로 지목된 것이다. 아간의 경우에도 제비는 결국 범죄를 저지른 당사자만 지목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 ESV와 NRSV에서는 이 제비뽑기에서 우림과 둠밈이 사용된 것으로 번역하고 있는데, 사울과 요나단에게 죄가 있으면 우림, 백성에서 죄가 있으면 둠밈이 뽑힐 것이었다(참조, John H. Walton, Victor H. Matthews, and Mark W. Chavalas, *The IVP Bible Background Commentary: Old Testament* [Dow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2000], 302); '제비뽑기 신탁'과 '우림과 둠밈'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해서는 Dam, *NIDOTTE*, 1: 826을 참고하라.

삼육대학교 | IP: 210.94.252.*** | Accessed 2018/12/21 11:37(KST)

꿀을 조금 먹었다고 고백하게 되고, 사울은 그의 명령을 어긴 요나단을 죽이려고 하지만, 백성의 도움으로 요나단은 죽음을 면한다. 여기서도 제비뽑기를 통하여 한 범죄자를 가려내므로 결국 한 제비는 한 대상에게만 해당된다.

제비 뽑는 사례들을 통해서 볼 때 동일한 정체(identity)에게 두 개의 제비를 동시에 부여하는 경우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이것은 야훼와 아사셀이 결코 같은 정체일 수 없으며 한 정체를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야훼나 아사셀을 사용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시사한다.[21]

III. '라도나이'(לַיהוָה)와 '라아자젤'(לַעֲזָאזֵל)의 전치사 '러'(לְ)에 대한 번역과 해석

아사셀과 관련된 또 다른 문제는 '라도나이'(לַיהוָה)와 '라아자젤'(לַעֲזָאזֵל)에 관한 부분으로서 전치사 '러'(לְ)에 대한 번역 및 해석의 문제인데, '라도나이'의 '러'는 대부분 일관되게 번역하지만, 레위기 16장에서 네 번 사용된 '라아자젤'의 '러'에 대한 한글 성경 및 외국어 성경 역본들은 그 번역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있다. 레위기 16장 8-10, 26절[22]에서 '라도나이'와 '라

21) 핑커(Aron Pinker)는 야훼와 아사셀 모두 원래 하나님의 이름이었다고 강조한다. 하나님은 본래 광야에서 숭배를 받으셨는데 예루살렘 성소에 거주하심으로 광야의 거주를 대체하게 되었고, 광야에 거주한 하나님이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처럼 악한 세력으로 간주되어 나중에 결국 아사셀이 사단을 가리키게 되었다고 주장한다(Pinker, "A Goat to Go to Azazel," 22-25). 하지만 이 주장은 레위기 16장 8-10절의 제비뽑기의 문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22) 이 구절들의 번역에 있어서 「개역한글」은 「개역개정」과 같고 , 「공동번역」은 「공동번역개정판」과 같고, 「표준 새번역」과 「새번역」은 같다.

삼육대학교 | IP: 210.94.252.*** | Accessed 2018/12/21 11:37(KST)

아자젤'이 어떻게 번역되었는지 살펴보면서 이에 대한 올바른 번역/해석과 더불어 아사셀의 정체를 규명해보도록 하겠다.

1. 레위기 16장 8-10, 26절에서의 전치사 '러'(לְ)에 대한 번역과 해석

레위기 16장 8절에서는 '라도나이'와 '라아자젤'이 나란히 나온다. 대부분의 영어 번역본[23]과 「개역개정」에서는 '라도나이'를 '여호와를 위하여'로, '라아자젤'을 '아사셀을 위하여'로 번역해 놓았다. 하지만 '라도나이'를 CEV(Contemporary English Version)에서는 '나에게 바칠'(be sacrificed to me)로, 그리고 「공동번역개정판」과 「새번역」에서는 각각 '야훼께 바치고', '주께 바칠 염소'로 번역했다[24]. 이 세 역본들은 '러'를 전후 문맥에 근거하여 한 염소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것으로 의역하였다. CEB(Common English Bible)는 '주님의 것'(the Lord's), '아사셀의 것'(Azazel's)으로 번역함으로써 '러'를 소유의 개념으로 보았으며, 이렇게 본다면 아사셀이 단지 동물의 이름이나 장소가 아니라 무엇인가를 소유할 수 있는 인격체임을 암시한다. 「새번역」은 '라도나이'와 마찬가지로 '라아자젤'을 '아사셀에게 바칠'로 번역함으로 '러'의 번역에 있어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25] 이런 번역은 자연적으로 아사셀의 존재가 야훼와 대응하는 하나의 인격체임을 시사한다. 하지만 「공동번역개정판」은 '아자젤에게 보내야 한다'고 번역함으로써 같은 '러'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고 있다.[26] CEV는 「공동번역개정판」과 번역이 거의 비슷하지만 아사셀을

23) ASV, CJB, ESV, NJPS, KJV, LXX(Brenton Translation), NASB, NJB, NIV, RSV, YLT.

24) 「아가페 쉬운성경」, 「현대어 성경」,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도 마찬가지로 번역했다.

25) 「아가페 쉬운성경」도 마찬가지로 번역하여 일관성을 보이고 있다.

26) 「현대어 성경」과 「현대인의 성경」은 각각 "광야의 아사셀에게 보낼 제물로", "광야로 보낼 염소를"로 번역함으로서 히브리어 본문에 있지 않는 '광야'와 '염소'를 넣어서 의역하고 있다. 이 역시 전후 문맥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전자와 달리 후자는 본문에 있는 아사셀은

삼육대학교 | IP: 210.94.252.*** | Accessed 2018/12/21 11:37(KST)

'마귀 아사셀'(the demon Azazel)로 의역함으로써 아사셀의 정체를 마귀로 밝혀 놓고 있다. LXX에서는 아사셀이란 말은 사라지고 '아포폼파이오'(ἀποπομπαίῳ/떠나는)로 번역해 놓았는데, 그 결과 아사셀의 의미가 상실된 것으로 보인다.[27]

레위기 16장 9aα절에서는 '라도나이'만 등장한다. 영어 역본 중 일부는 '…위하여'(for)[28], 일부는 '…에게'(to)[29]라고 번역해 놓았다. 「개역개정」은 8절과 동일하게 '여호와를 위하여'로 번역하였다. '야훼(주)의 몫으로' 번역한 「공동번역개정판」과 「새번역」은 8bα절과 다르게 번역하였고, CEB는 8bα절과 마찬가지로 '야훼의 것'으로 번역함으로 이 세 역본 모두 '러'가 소유의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30]

레위기 16장 10절에서는 '라아자젤'이 두 번 사용되었다. 영어 역본에서는 '러'가 '…위하여'(for), '…로서'(as), '…에게'(to)로 번역되었다. CEB에서는 첫 번째 '라아자젤'은 '아사셀의 것'으로, 두 번째 것은 '아사셀에게'(to Azazel)로 번역하였다. 「개역개정」은 둘 다 '아사셀을 위하여'로, 「공동번역개정판」과 「새번역」은 첫 번째 것은 9절과 같이 '아사(자)셀의 몫으로'로 두 번째 것은 '아사(자)젤 에게'로 번역하였다.[31]

있는 그대로 음역하지 않고 아사셀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인 '떠나는 염소'(scapegoat)에 근거하여 풀어서 번역한 것으로 보인다.

27) '아사셀'을 10a절에서는 'ἀποπομπαίου', 10b절에서는 'ἀποπομπήν', 26a절에서는 'ἄφεσιν'로 번역함으로써, 모두 '떠나는'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아사셀의 의미가 상실되었다고 볼 수 있다.

28) ASV, ESV, NJPS, LXX(Brenton Translation), NASB, NJB, RSV, YLT.

29) CJB, NIV.

30) 「아가페 쉬운성경」, 「현대어 성경」,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은 8절의 '라도나이'와 마찬가지로 '러'를 '…께, 에게'로 번역하면서 '…을 바치다'는 의미를 추가하고 있다.

31) 「현대어 성경」은 8-9절과 일관되게 10절에서도 제비로 뽑힌 숫염소는 "광야의 아사셀에게 보낼 제물"이며 그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내야 한다고 번역하는데, 이는 아사셀을 하나의 인격체로 보는 견해를 반영한 것이다.

삼육대학교 | IP: 210.94.252.*** | Accessed 2018/12/21 11:37(KST)

레위기 16장 26aα절에서는 네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라아자젤'이 등장한다.[32] CEV는 8bβ절에서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마귀 아사셀에게로'(to the demon Azazel)로 번역하고 있다. 「공동번역개정판」과 「새번역」는 10b절과 마찬가지로 '러'를 '…에게'로 번역했고, 「개역개정」은 8-10절에서와 달리 이곳에서만 '러'를 '…에게'로 번역했다. ESV, NJB, RSV, 「공동번역개정판」과 「새번역」은 10b, 26aα절의 '라아자젤'의 '러'는 '…에게'라고 일관되게 번역하였고, 「개역개정」은 26aα절에서만 '…에게'로 번역하여 그 일관성을 놓치고 있다. 이렇게 번역한 이유는 아사셀이 장소나 인격체라고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0b절과 26aα절에서 아사셀을 '떠나는 염소'(scapegoat)라고 번역한 영어 역본에서는 '러'를 '…에게'(to)라고 번역하지 않고 '…을 위하여'(for)[33] 혹은 '…으로서'(as)로 번역하였다.[34] '러'를 '…에게/을 위하여'(to/for)로 이해하면, 10b절과 같은 경우에 '염소는 떠나는 염소에게/염소를 위하여 보내진다'라고 번역되는데[35], 그 의미가 중첩되어 전혀 말이 되지 않는다.[36] 그나마 말이 되는 번역은 '…으로서'(as)인데, 과연 러가 그런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다. 또한 10b절, 21bβ절, 그리고 26aα절에서 모두 동사는 '샬라흐'의 강세형(Piel, מְשַׁלֵּחַ/보내다)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라아자젤'의 전치사 '러'는 일관되게 '…에게(to)' 혹은 '…위하여(for)'라고 번역할 필요가 있다.

---

32) 영어 역본은 10절에서의 '러'('to' or 'for')처럼 번역하였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하지 않고 몇몇 예외 사항만 보겠다; 「우리말 성경」은 여기서만 LXX를 반영하여 아사셀을 "떠나보내는 제물인 염소를"로 번역하였다.

33) KJV와 YLT는 조금 다르게 'for a goat of departure'(떠남의 염소)라고 번역하였다.

34) NASB, NIV, NKJV.

35) 26a절도 마찬가지이다: '떠나는 염소에게/염소를 위해서 염소를 보내는 사람은…'

36) 왕대일, "아사셀 염소와 속죄의 날(레 16:6-10) - 그 해석학적 재고," 「구약논단」 19집 (2005년 12월), 14; Roy Gane, *Leviticus, Numbers* (NIVAC; Grand Rapids, MI: Zondervan, 2004), 289.

삼육대학교 | IP: 210.94.252.*** | Accessed 2018/12/21 11:37(KST)

2. 고랄의 문맥에서 본 전치사 '러'의 번역과 해석

히브리어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레위기 16장 8bβ절과 9aβ절, 그리고 10a절에서 '라도나이'와 '라아자젤'은 모두 그 앞에 '고랄'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러'가 일관성을 가지고 번역[37]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역본들은 그렇지 못한 것을 볼 수 있다.[38]

16:8 גּוֹרָל אֶחָד לַיהוָה וְגוֹרָל אֶחָד לַעֲזָאזֵל

16:9 אֶת־הַשָּׂעִיר אֲשֶׁר עָלָה עָלָיו הַגּוֹרָל לַיהוָה

16:10a וְהַשָּׂעִיר אֲשֶׁר עָלָה עָלָיו הגּוֹרָל לַאֲזָאזֵל

특히 8절에서 '고랄 에하드 라도나이'와 '고랄 에하드 라아자젤'은 구문론적인 평행을 보여주는데, 이를 근거로 학자들은 아사셀도 야훼처럼 이름인 동시에 초자연적인 존재라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이름'이나 '주의 원수'로 본다.[39]

이에 반하여 핫지(Zane D. Hodge)는 '라도나이'와 '라아자젤'에서의 '러'는 평행적으로 번역/해석하지 말고 다르게 이해해야 한다면서, 그 둘의 평행을 기초로 아사셀을 마귀나 마귀의 이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다.[40] 그는 '라도나이'와 '라아자젤'에서 사용된 전치

37) ASV, CEB, ESV, NJPS, NASB, NJB, YLT, 「개역개정」

38) CJB, NIV, 「공동번역개정판」, 「새번역」

39) Hyam Maccoby, *Ritual & Morality: The Ritual Purity System and its Place in Judaism*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1999), 88-89; Walton, etc., *Old Testament*, 131; Martin Noth, *Leviticus: A Commentary* (OTL; London: SCM Press LTD, 1977), 125; Milgrom, *Leviticus*, 1021; Roy E. Gane, *Cult and Character: Purification Offering, Day of Atonement and Theodicy* (Winona Lake, IN: Eisenbrauns, 2005), 249-250.

40) Zane D. Hodge, "A Historical and Grammatical Examination of Azazel in Biblical and

삼육대학교 | IP: 210.94.252.*** | Accessed 2018/12/21 11:37(KST)

사 '러'에 주목한다.[41] 레위기에서 '러'를 취하고 있는 야훼(러 + 야훼)와 '러'를 취하고 있는 명사(러 + 명사)가 나란히 나오는 29개의 히브리어 본문(MT)과 그 칠십인역(LXX)을 연구하면서 '러'가 평행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다르게 사용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이를 기초로 '라도나이'의 '러'는 '…에게'(to)로, '러 + 명사'의 러는 '…을 위하여'(for)로 일관성 있게 번역해야 한다고 강조한다[42]. 특히 칠십인역에서 16장 8절의 "아사셀을 헬라어 형용사 아포폼파이오(ἀποπομπαίῳ/sending away[떠나 보내는])로 번역한 것"은 8절에서 두 '러'의 해석에 대한 분명한 차이를 시사한다고 주장한다.[43] 따라서 그는 결론적으로 8절에서 구문론적인 평행은 없는 것이며 가장 전통적인 해석으로서 아사셀을 "염소가 했던 일에 대한 묘사"(떠나보내는 염소) 혹은 "염소를 위한 적절한 이름"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보고 있다.[44]

그러나 핫지의 주장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그가 검토한 29개의 구절에서는 16장 8절에서 보이는 구문론적인 평행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들은 서로 비교할 만한 구절이 못된다. 둘째, 16장 8절의 문맥이 제비뽑기라는 사실을 고려하여 제비뽑기 문맥에서 '러'의 용례를 살펴보았어야 했다. 셋째, 핫지는 자신의 주장을 더 확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칠십인역의 번역에 의존하고 있다.

Extra-biblical Sources with Special Emphasis Given to Its Meaning with the Hebrew Preposition ל," (Ph.D. diss., Mid-America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2004), 131-183.

41) 앞의 논문, 131.

42) 앞의 논문, 188.

43) 앞의 논문, 182-3. 이를 반영하여 핫지는 다음과 같이 번역한다: "one to the Lord and one for a sending away one"(하나는 여호와에게 그리고 하나는 떠나 보내는 것[염소]를 위하여). 핫지 역시 레위기 16장 8절의 히브리어 구문에서 평행을 발견할 수 있다고 확신하지만, 두 '러'의 의미가 히브리어와 달리 헬라어에서는 분명히 구별된다는 것을 지적한다(앞의 논문).

44) 앞의 논문, 189.

삼육대학교 | IP: 210.94.252.*** | Accessed 2018/12/21 11:37(KST)

그럼 이제 구약성경에서 고랄이 등장할 때 사용되는 전치사들을 살펴보되, 특히 '러'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다. 고랄은 주로 전치사 '러'를 수반하는데, 전치사 '알'(עַל)과 '엘'(אֶל)을 수반하는 경우도 있다. '알'이 나오는 본문에서는 제비뽑히는 대상으로서 비인격체인 경우(느 10:34[나무]; 시 22:18[옷]; 겔 24:6[녹]; 옵 1:11[예루살렘])와 인격체인 경우(삿 20:9[그들]; 욘 1:7[요나]; 나 3:10[존귀한 자들])가 있다. '엘'이 나오는 본문에서는 제비뽑히는 대상으로서 인격체인 경우(욜 3:3[내 백성])만 나온다. '러'가 나오는 본문에서는 '알'이나 '엘'과 다르게 제비뽑히는 대상이 아니라 제비로 뽑힌 대상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즉 누구의 소유가 될 것인지, 아니면 특정 직임이 누구에게 돌아가는지를 밝히고 있다. '러'가 '고랄'과 연관되어 사용되는 35개의 본문에서 드러나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러'가 취하고 있는 대상은 비인격체(동물을 포함하여)가 아니라 모두 인격체를 가리킨다는 점이다.[45] 이것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첫째는 땅 분배와 관련된 것이다. 고랄은 땅을 분배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었는데, 특히 여호수아와 역대상에서다. 예를 들면, 여호수아 19장 1절이다.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לְשִׁמְעוֹן לְמַטֵּה בְנֵי־שִׁמְעוֹן)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הַגּוֹרָל)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여호수아에서 보여주는 패턴은 다음과 같다: '지파 이름 + 을 위하여(러) … 제비(고랄) + 동사[뽑았으니].'[46] 이는 '러'와 '고랄'이 어떻게 사용되고 번역되었는지를 보여주며, 또한 제비로 뽑힌 땅이 어느 지파의 소유가 될 것인지를 드러내려고 '러'가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 외

45) 땅 분배와 관련된 구절: 민 26:55; 33:54*2; 34:13; 36:2; 수 14:2; 15:1; 16:1; 17:1, 17; 18:6, 8, 10, 11, 19:1, 10, 17, 24, 32, 40; 21:4, 5, 6, 8, 10, 20, 40; 사 34:17; 대상 6:54(H. 39),61(H. 46), 63(H. 48); 성소 봉사 직임과 관련된 구절: 대상 24:7; 25:9; 26:13, 14.

46) 수 18:11, 19:1, 10, 17, 24, 32, 40; 21:4.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러 + 지파 이름'이 고랄 앞에 혹은 뒤에 오기도 하지만, 한글 번역(개역개정)에서는 '~지파를 위하여 제비를 뽑았다'고 일관성이 있게 번역하였다.

삼육대학교 | IP: 210.94.252.*** | Accessed 2018/12/21 11:37(KST)

의 경우에도 제비뽑기로 선택된 땅이 누구의 소유인지 밝히기 위해서 '러'가 사용되었다. 두 번째로는 성소 봉사와 관련된 직임에 누가 선택될 것인지에 대한 것이다. 이를테면, 성전에서 섬길 제사장들, 성전에서 봉사할 음악가들, 그리고 성전 문을 지키는 사람들을 제비로 뽑는 경우이다.[47]

따라서 구약에서 '고랄'과 연관된 '러'의 용례는, 아사셀이 인격체라는 것과 레위기 16장 8bβ절과 10a절의 '라아자젤'을 '아사셀을 위하여'(for Azazel) 또는 '아사셀에게 속한'(belonging to Azazel)으로 번역해야 할 것을 제시한다. 즉, 아사셀을 '떠나는 염소'(scapegoat), 장소(광야의 절벽)[48], 혹은 '전적인 제거'(entire removal)를 뜻하는 비인격적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레위기 16장 8절에서 '라도나이'와 '라아자젤'이 병치되어 있는 것을 상호 대조로 이해하여 각각 다른 인격체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레위기 16장 10절의 교차대구, '아사셀' :: '야훼' :: '아사셀'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IV. 아사셀을 위한 '산 염소' 예식

1. '산 염소'가 속죄제인가?

이제 '산 염소' 예식을 통하여 아사셀의 정체를 알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아보도록 하자. 먼저 '산 염소'도 속죄제 희생제물인지 질문해 보아야 할

47) 대상 24:7; 25:9; 26:13, 14.

48) 아사셀 염소가 보내지는 장소인 '광야'에는 두 번은 동일하게 방향 접미어 הָ (הַמִּדְבָּרָה[레 16:10, 21])를, 다른 한 번은 그 앞에 전치사 בְּ(בַּמִּדְבָּר[16:22])를 사용하였다.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는 전치사 אֶל(אֶל־אֶרֶץ גְּזֵרָה[레 16:22])이 사용되었다. 아사셀과 관련해서는 네 번 모두 일관되게 전치사 러(לְ)를 사용하고 단 한 번도 다른 방향 전치사를 사용하지 않은 것을 보면 아사셀이 장소를 가리킬 가능성은 매우 적어 보인다.

삼육대학교 | IP: 210.94.252.*** | Accessed 2018/12/21 11:37(KST)

것이다. 일부 학자들이 그렇다고 주장하는 것은 레위기 16장 5절에서 '한 속죄제'(단수 חַטָּאת)를 위하여 두 염소를 취하는 것과 7절에서 그 두 염소를 야훼 앞에 세워두는 것에 근거한다.[49]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두 염소의 경우에는 제비를 뽑아서 그 역할이 결정되었으며(16:7-8), 제비뽑기는 그 주체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제비뽑기 이전에는 그 두 염소를 야훼 앞에 세워두고(레 16:7) 제비뽑기 이후에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홀로 야훼 앞에 세워지는 것(16:10)은, 두 염소 중 하나가 아사셀을 위한 염소로 지정되도록 하신 분이 야훼라는 것을 강조하는 저자의 의도를 보여준다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50] 만약 대제사장이 그 두 염소의 역할을 결정했더라면 "그와 그가 대표하는 백성들이 아사셀에게" 제물을 "바치는 것으로 보였을 것이다."[51] 하지만 야훼가 결정했기 때문에 '산 염소'를 아사셀에게 희생제물로 바치는 것으로는 생각할 수 없다.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숫염소(לַשְּׂעִירִם)[52]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17:7)는 하나님의 명령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다른 누구에게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을 허락했을 리 만무하다.[53]

레위기 16장 5절에서는 두 염소 모두 한 속죄제인 것처럼 표현되어 있

---

49) 김경열, 『레위기의 신학과 해석』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6), 197-199; 왕대일, "아사셀 염소와 속죄의 날," 21; 이상란 · 정중호, "대속죄일과 아사셀," 「구약논단」 3 (1997), 21-22; S. H. Kellogg, *The Book of Leviticus* (EB, London: Hodder and Stoughton, 1906), 266-271.

50) Milgrom, *Leviticus*, 1020.

51) Ibid.; 참조, Gane, *Cult and Character*, 250.

52) "goat demons[염소 마귀들]"(ESV, NASB, NJPS); "devils[마귀들]"(KJV).

53) Gane, *Leviticus, Numbers*, 288. 아사셀의 정체를 마귀나 그의 이름으로 보는 견해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히브리 제사 제도에서 마귀에게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있을 수 없다는 데 있다(왕대일, "아사셀 염소와 속죄일," 17; 이상란 · 정중호, "대속죄일과 아사셀," 20-21). 하지만 '산 염소'가 아사셀에게 바치는 제물이었다는 암시는 레위기 16장에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레위기 17장 7절 본문이 분명히 밝히고 있다.

삼육대학교 | IP: 210.94.252.*** | Accessed 2018/12/21 11:37(KST)

으나, 제비뽑기 이후에는 9절에서 야훼를 위한 염소는 속죄제로 드려졌으나 10절에서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도 속죄제로 드린다는 언급 없이 단지 광야로 보낸다고 말한다.[54] 굳이 10절이 아니더라도, 20-22절과 26절에서 그런 언급을 할 충분한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속죄제 희생제물이라는 언급이 전혀 없다. 제비뽑기 이후에는 야훼 염소에 대해서는 '속죄제 염소'(15, 27절), '속죄 제물'(25절)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반면, 아사셀 염소는 '살아있는 염소'(20, 21절)라고만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이다. 만약 아사셀 염소도 속죄제로 간주되었다면 단 한번만이라도 '속죄제'나 '살아있는 속죄제 염소'라고 불러야 하지 않았을까? 아사셀을 위한 염소를 '살아있는 염소'라고 말한 이유는 희생 제물로 죽여 피를 쏟게 하는 예식이 없었기 때문이며, 그것은 대속의 기능이 없다는 것을 뜻한다(레 17:11). 아사셀 염소 또는 아사셀 염소의 어떤 부분도 야훼에게 바쳐지지 않은 사실 그 자체가 '산 염소' 예식이 속죄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거한다.[55] 또한 "그 염소는 백성들의 죄를 옮기기 때문에 부정했으며, 따라서 희생제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56]

게인(Roy Gane)은 '산 염소'가 희생제물은 아니지만, 아주 독특한 형태의 '비희생적 속죄제'(nonsacrificial purification ritual)라고 주장한다.[57] 하지만 본문은 분명하게 '야훼를 위한 염소'에 대해서만 속죄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희생제물이나 속죄제가 될 수 없다.

---

54) 참조, Levine, Baruch A., *The JPS Torah Commentary: Leviticus* (The Jewish Publication Society, 1989), 103.

55) Gane, *Cult and Character*, 252; Roland de Vaux, *Studies in Old Testament Sacrifice* (Cardiff: University of Wales Press, 1964), 97.

56) 하틀리, 『레위기』, 506.

57) Gane, *Cult and Character*, 258-261.

삼육대학교 | IP: 210.94.252.*** | Accessed 2018/12/21 11:37(KST)

그렇다면 왜 레위기 저자는 두 염소를 모두 하나의 속죄제라고 표현하였으며(5절) 야훼 앞에 세워두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는가(7절)? 먼저 우리는 5절과 7절 모두 제비뽑기가 이뤄지기 전에 있은 일에 대한 진술이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일단 제비가 뽑혀진 다음에는 오직 야훼를 위한 염소만 속죄제이므로 그 후에는 야훼를 위한 염소만 속죄제로 표현하고 있지만(9-10절), 제비뽑기 이전에는 두 염소 중 어느 것도 속죄제로 뽑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58]

일부 학자들은 속죄일의 두 염소를 악성 피부병 환자를 위한 정결 예식의 새 두 마리와 비교하면서 두 예식의 기본 의도가 동일하다고 주장한다.[59] 하지만 두 예식에는 큰 차이가 있다. 악성 피부병 환자를 위한 정결 예식에서 새 두 마리의 경우에는 어느 새를 죽이고 어느 새를 살려 둘지 제비 뽑지 않았고(레 14:4-6), 가난하여 속죄제물로 새 두 마리를 가져 오는 경우에도 어느 새를 속죄제로 드리고 어느 새를 번제로 드릴지 제비를 뽑지 않았다(5:7-10; 14:22, 30-31). 따라서 속죄일에 진행되었던 두 염소의 제비뽑기는 독특하게 부각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 둘째, 아사셀 염소와 들에 놓았던 새는 대조적으로 이해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비록 동일한 동사 '샬라흐'(שָׁלַח)가 사용되었으나(14:7; 16:10) 그들이 놓인 장소는 새의 경우는 자유일 수 있지만, 염소의 경우는 야생 염소가 아니기 때문에 광야 곧 '접근하기 어려운 땅'은 자유가 아니라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60]

---

58) Angel M. Rodriguez, *Substitution in the Hebrew Cultus* (AUSDS 3; Berrien Springs, MI: Andrews University Press, 1979), 131; Levine, *Leviticus*, 101.

59) 이상란 · 정중호, "대속죄일과 아사셀," 17-18; 하틀리, 『레위기』, 506-7; Mary Douglas, "The Go-Away Goat," in *The Book of Leviticus: Composition and Reception*, eds. Rolf Rendtorff and Robert A. Kugler, (Leiden: Brill, 2003), 133-134.

60) 참조, Gane, *Cult and Character*, 255. 비록 레위기 16장은 '산 염소'의 죽음을 전혀 언급하지 않지만, 집에서 기른 염소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러 광야에 놓였을 때(레 16:22) 죽었을 확률이 높다(참조, 하틀리, 『레위기』, 511).

삼육대학교 | IP: 210.94.252.*** | Accessed 2018/12/21 11:37(KST)

2. '산 염소'가 머리에 모든 죄를 짊어짐

레위기 16장 20절은 '산 염소' 예식이 시작하는 시점을 성소 정결을 마친 이후로 지적하고 있음을 우리는 우선 주목해야 할 것이다. 또한 21-22절은 '산 염소' 예식에 대해서 10절에서 설명하지 않은 것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동사 나사(נָשָׂא/짊어지다)는 아본(עָוֹן, 죄악/iniquity)을 목적어로 취하면서 전치사를 사용하지 않지만(나사 + 아본)[61], 22절에서는 3인칭 대명사 접미어가 붙은 전치사 '알'(עַל)을 사용하여 '나사 + 알 + 3인칭 대명사 접미어 + 아본'(וְנָשָׂא הַשָּׂעִיר עָלָיו אֶת־כָּל־עֲוֹנֹתָם)이라는 독특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동물이 주체가 되어서 죄를 짊어지는 것은 아사셀을 위한 '산 염소'가 구약 성경에서 유일한 경우이다. 22절 외에 나사가 '알 + 3인칭 대명사 접미어'를 취하는 경우는 세 번(레 19:17; 22:9; 민 18:32)인데, '로 + 나사(נָשָׂא) + 알 + 3인칭 대명사 접미어 + 헤트(חֵטְא)'라는 동일한 형태를 모두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알'이 취하는 3인칭 대명사 접미어는 주어와 다른 존재를 가리킬 뿐만 아니라, 문맥상 '알'은 '…위에'(upon)라고 번역되기 보다는 '…위하여'(for) 혹은 '…때문에'(because of)라고 번역되고 있다[62]. 특히 레위기 16장 22절에서는 '알'에 붙은 3인칭 대명사 접미어는 주어와 같고, 따라서 '알'을 '…위에'라고 번역해야 할 것이다. 본문은 '산 염소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들을 짊어지고'라고 하지 않고 '산 염소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들을 자기 위에 짊어지고'라고 말한다는 점에서 아사셀을 위한 '산 염소' 예식의 특이성을

61) 예를 들면 출 28:38; 28:43; 레 5:1, 17; 10:17, 등. 레위기 16장 22절을 제외하고는 '나사 + 아본'의 구문에서 '아본'에 전치사가 붙은 경우는 오직 두 번, 에스겔 18장 19절과 20절(בַּעֲוֹן)에만 나온다. BHS 본문비평장치는 칠십인역(LXX)을 기초로 전치사 '바'(בַּ)가 추가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62) 참조, ESV, NASB, 등

삼육대학교 | IP: 210.94.252.*** | Accessed 2018/12/21 11:37(KST)

보여주고 있다. 이는 '산 염소'의 경우는 대속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죄의 짊어짐과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하여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3. '산 염소'가 죄를 짊어지는 것의 의미

일반적인 경우처럼 레위기 16장 21절에서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였다고만 언급해도 될 것인데 '머리'를 한 번 더 언급하면서 '그것들[죄들]을 머리에 두어'[63]라는 독특한 표현을 사용하였다.[64] 이는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고백하면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는 행위는 다른 방식으로 설명함으로써 이스라엘의 모든 죄들이 그 머리에 전가되는 것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에 대한 처벌이 나오는 레위기 24장 14-15절과의 비교를 통해서 '산 염소'가 죄를 짊어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추론해 볼 수 있다.

	레위기 16:21-22	레위기 24:14-15, 23
1.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 있는 염소의 머리(עַל רֹאשׁ הַשָּׂעִיר)에 안수하여(וְסָמַךְ)" "그 죄를 염소의 머리(עַל־רֹאשׁ הַשָּׂעִיר)에 두어"	"그것[저주하는 말]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עַל־רֹאשׁוֹ)에 얹게 하고(וְסָמְכוּ)"

63) 21절에서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라고 말하는데, 원문에는 '죄'라는 말이 없고 '그것들을'(오탐[אֹתָם])인데 이는 바로 앞에서 열거한 '여러 종류의 죄들'을 가리킨다. 「새번역」, 「공동번역개정판」에서는 "그 모든 죄를"이라고 번역하였다.

64) 구약에서 손으로 머리에 안수하는 것을 언급하는 구절들(출 29:10, 15, 19; 레 1:4; 3:2, 8, 13; 4:4, 15, 24, 29, 33; 24:14)을 보면 '죄들을 머리에 두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머리를 한번 더 언급한 곳은 오직 레위기 16장 21절뿐이다.

65) 한글 역본에는 알라이브(עָלָיו)가 문자 그대로 번역되지 않았다. 하지만 많은 영어 역본은 '그것 위에'(on itself [ESV, NIV, NASB]) 아니면 '그 위에'(on him [YLT], upon him [RSV,

삼육대학교 | IP: 210.94.252.*** | Accessed 2018/12/21 11:37(KST)

2.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죄악]를 [자기] 위에[65] 지고(וְנָשָׂא הַשָּׂעִיר עָלָיו אֶת־כָּל־עֲוֹנֹתָם)"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וְנָשָׂא חֶטְאוֹ)"
3.	"광야로 보낼지니…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4.	[염소가 광야에서 죽음][66]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위의 표는 죄와 머리가 저주의 문맥에서 함께 사용되고 있다는 것과 그 외에도 서로 유사한 용어들이 사용되어 평행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67] 저주하는 말을 들은 증인들이 손으로 신성모독자의 머리에 안수하면 그는 자신의 죄를 짊어지고 진 밖에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온 백성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이 두 손으로 '산 염소'에게 안수하면 그 염소는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아무도 거하지 않는 광야로 가서 죽게 된다.

이스라엘 백성은 일년 내내 죄에 대한 용서를 받았고(레 4:20, 26, 31, 35; 5:10, 13, 16, 18; 6:7) 이미 성소 정결이 마친 상황에서(레 16:20a) 대제사장이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면서 모든 죄를 고백하는 것은 죄의 용서를 구하려는 것이 아닌 것이 틀림없다. 야훼의 이름을 저주하는 사람에게

KJV])라고 번역하고 있다.

66) '산 염소'가 보내질 장소도 교차대구 구조를 보이고 있다. '광야' :: '접근하기 어려운 땅' :: '광야'. 22절에서는 광야가 언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이 언급된 것은 '산 염소'가 가야 할 곳은 이스라엘 진영과 완전히 분리된 곳이어야 하며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희박한 곳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하틀리, 『레위기』, 511).

67) Gane, *Cult and Character*, 264. 물론 서로 차이점도 있다. '산 염소' 예식의 경우에는 온 백성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이 아사셀이 아닌 '산 염소'에게 안수하였고 모든 백성이 야훼께 죄를 지었지만, 야훼를 저주하는 경우에는 야훼를 저주하는 말을 들은 증인들이 그 신성모독자의 머리에 직접 안수를 하였고 그 증인들이 그 죄에 참여하지는 않았다.

삼육대학교 | IP: 210.94.252.*** | Accessed 2018/12/21 11:37(KST)

그 저주가 다시 그에게 돌아가서 보응을 받는 것은,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갚으리라'(겔 9:10; 11:21)[68]는 말씀, 곧 야훼가 악인들이 범한 악한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보응하겠다는 것에 대한 실례이다. 즉, 심은 대로 거둔다는 원칙인데, 이 원칙을 아사셀에게 적용하면, 용서받은 모든 죄가 '산 염소'라는 매개물을 통하여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레 16:10) 보내지는 것은 아사셀이 죄의 선동자 곧 사탄이라는 것을 암시한다.[69]

따라서 대제사장이 모든 죄를 고백하는 것은 아사셀을 고소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저주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그 신성모독자를 반대하는 증인들이 되었듯이, 온 백성을 대표하는 대제사장도 백성들이 죄를 짓도록 부추긴 아사셀을 반대하는 증인의 역할을 담당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70] 그렇다면 모든 죄를 짊어진 '산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내는 목적은 "그 죄들을 본래의 자리에 보냄으로써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그것들을 제거하고" "그것들을 거기에 남겨두어 백성들을 속박하고 억압했

68) 삿 9:57; 삼상 25:39; 삼하 3:29; 왕상 2:32-33; 대하 6:23; 시 7:16; 겔 16:43; 22:31; 욜 3:4, 등.

69) 카일 · 델리취(C. F. Keil and F. Delitzsch)는 아사셀이 사람들을 악한 길로 유혹하는 귀신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나중에 가서 사단이라고 불리웠던 타락한 천사들의 우두머리 귀신"을 가리킨다고 주장하는데, 그 이유는 "여기서 아사셀이 여호와에 대한 반대 인물로 언급되었을 때[레 16:8-10], 어떤 낮은 지위의 악령이 언급될 수는 없고 오직 마귀 나라의 지배자나 우두머리가 언급될 것이기 때문이다."(카일 · 델리취/김득중 옮김, 『레위기』 [서울: 기독교문화출판사, 1983], 191-192). 레위기는 수염소 숭배에 대해 경멸적인 태도를 보이며 사탄의 존재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와 비교해 볼 때 구약에서의 사탄의 활동이 분명하게 기술되지 않은 이유는, 사탄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성경 계시의 초기 단계에서 하나님을 공공연하게 부인하는 문화 속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유일성과 주권을 심어주기 위해서였다"고 보이드(G. A. Boyd)는 주장한다(Gregory A. Boyd, *God at War: The Bible and Spiritual Conflict* [Downers Grove, Illinois: IVP Academic, 1997], 82-83); 참조, KyeSang Ha, "Cultic Allusions in the Suffering Servant Poem(Isaiah 52:13-53:12)" (Ph.D. diss., Andrews University, 2009), 205-207.

70) Gane, *Cult and Character*, 264.

삼육대학교 | IP: 210.94.252.*** | Accessed 2018/12/21 11:37(KST)

던 힘을 깨뜨려"[71] 부수기 위한 것이며, '산 염소'를 광야에 보내서 떠돌다가 결국 죽게 만든 이유는 이것이 궁극적으로 아사셀의 운명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72] 레위기 16장 10b절에서는 아사셀(대상)과 광야(장소)가 다 언급되어 있는 반면, 26aα절에서는 광야 없이 아사셀만 언급되었고, 21bβ절에서는 아사셀 없이 광야(장소)만 언급되어 있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장소(광야)만 언급하고 대상(아사셀)을 언급하지 않은 것(21-22절)은 모든 죄를 이스라엘과 분리시키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이고, 대상(아사셀)만 언급하고 장소(광야)를 언급하지 않은 것(26절)은 죄의 선동자에게 모든 죄가 돌아가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산 염소'가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든 죄를 자신의 머리에 짊어진다는 것의 의미는 죄를 대속하려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차로서 이스라엘의 모든 오염원을 아무도 거하지 않는 광야로 가져가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안전하게 거하도록 하기 위함이다.[73]

4. 아사셀 염소와 이스라엘 공동체의 극명한 대조

상호 대응하면서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레위기 16장 10절 하단과 30절을 우리는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용된 용어들과 구문의 유사

---

71) 하틀리, 『레위기』, 506, 511.

72) 참조, 카일 · 델리취, 『레위기』, 198; Gane, *Leviticus and Numbers*, 290. 광야는 마귀들[goat-demons]이 거하는 장소로 표현되었다(사 13:21; 34:14).

73) 일부 학자들은 히브리서(히 13:11, 12)를 근거로 광야로 보내진 '산 염소'가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주장한다(김경열, 『레위기의 신학과 해석』, 201, n. 9; 하틀리, 『레위기』, 517). 하지만 히브리서 13장 11절에서 말하는, 죄를 위해 흘린 짐승의 피와 진 밖에서 태우는 것은 아사셀 염소가 아니라 야훼를 위한 염소이다. 그러므로 이를 근거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이 구약에서 아사셀 염소로 표상되었다고 주장할 수 없다(Gane, *Leviticus and Numbers*, 289).

삼육대학교 | IP: 210.94.252.*** | Accessed 2018/12/21 11:37(KST)

성을 통해서 볼 때, 전자는 아사셀의 운명을 보여주고 있고, 후자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운명을 보여주고 있다. 이 두 구절의 히브리어 본문을 서로 비교해 보도록 하자.

לְכַפֵּר עָלָיו לְשַׁלַּח אֹתוֹ לַעֲזָאזֵל הַמִּדְבָּרָה (레 16:10 하단)
a b c d e f

יְכַפֵּר עֲלֵיכֶם לְטַהֵר אֶתְכֶם מִכֹּל חַטֹּאתֵיכֶם לִפְנֵי יְהוָה תִּטְהָרוּ (레 16:30)
a′ b′ c′ d′ e′ f′

a와 a′에서는 '카파르', b와 b′에서는 전치사 '알'+ 인칭 접미어, c와 c′에서는 전치사 '러' + 동사, d와 d′에서는 목적격 지시어 '에트' + 인칭 접미어, e와 e′에서는 전치사 '러' + 이름, f와 f′는 궁극적 결과가 서로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아사셀과 이스라엘 공동체는 서로 대조를 이루며 (e, e′), 광야로 보내져 영원히 분리되어 죽는 운명에 처해지는 것(c, d, e, f)과 모든 죄에서 깨끗함을 입게 되는 것(c′, d′, e′, f′)에서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속죄일을 통하여 아사셀에게 보내지는 '산 염소'는 파멸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정결케 된다. 이 과정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공동체는 모든 죄악에서 분리되고 깨끗함을 입게 된다.

V. 결론

본 연구를 통해 우리는 아사셀의 정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구약의 제비 뽑는 사례들을 볼 때, 동일한 정체(identity)에게 두 개의 제비를 동시에 부여하는 경우는 없다. 이것은 야훼와 아사셀이 결코 같은 정체일 수 없으며, 한 정체를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야훼와

삼육대학교 | IP: 210.94.252.*** | Accessed 2018/12/21 11:37(KST)

아사셀을 사용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시사한다.

둘째, '라아자젤'(לַעֲזָאזֵל)은 일관성 있게 '아사셀을 위하여'(for Azazel)라고 번역하는 것이 적절하지만, 동사 '살라흐'(שָׁלַח)가 쓰인 경우에는 '아사셀에게로'(to Azazel), '고랄'과 연관되어 사용된 경우에는 '아사셀에게 속한'(belonging to Azazel)으로도 번역이 가능하다.

셋째, 전치사 '러'(לְ)가 '고랄'(גּוֹרָל)과 연관되어 사용되는 35개의 구약 본문에서 드러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러'가 취하고 있는 대상이 비인격체(동물을 포함하여)인 경우는 없고 모두 인격체라는 사실이다. 그 대상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제비로 뽑힌 땅이 어느 지파의 소유가 될 것인지를 나타내는 경우와 성소 봉사와 관련된 직임에 선택받는 사람을 지목하는 경우에 '러'가 사용되었다. 이는 '라아자젤'에서 '아사셀'이 인격체라는 것을 보여준다.

넷째, 레위기 16장 본문에서 아사셀을 위한 '산 염소'를 속죄제라고 표현하지도 않았고 그 피흘림도 없었기 때문에, 그 염소는 희생제물이나 속죄제가 아니다. 하지만 레위기 16장 5절에서 두 염소 모두 한 속죄제라고 표현한 이유는, 제비뽑기 이전에는 두 염소 모두 속죄제로 뽑힐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동사 '나사'(נָשָׂא)가 '아본'(עָוֹן)을 목적어로 취할 때 아사셀을 위한 염소의 경우(레 16:22)에는 3인칭 대명사 접미어가 붙은 전치사 '알'(עַל)을 사용하여 '산 염소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들을 짊어지고'라고 하지 않고 '산 염소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들을 자기 위에 짊어지고'라고 말한다는 점에서 아사셀을 위한 '산 염소' 예식의 특이성을 보여주고 있다.

여섯째, 이스라엘 백성은 일 년 내내 죄에 대한 용서를 받았고, 레위기 16장 20a절에서 마침내 성소 정결이 마쳤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면서 모든 죄를 고백하는 것은 죄의 용서를 구하려는 목적이 아닌 것임이 분명하다. 죄를 지은 행위대로 범죄자가 그 머리에 심판

삼육대학교 | IP: 210.94.252.*** | Accessed 2018/12/21 11:37(KST)

을 받는 것(겔 9:10; 11:21 등)과 야훼를 저주하는 자에게 그 저주가 돌아가는 것(레 24:14-15, 23)을 고려해 볼 때, 산 염소의 머리 위에 모든 죄가 고백되고 그 염소를 통해 모든 죄가 아사셀에게 보내지는 것은, 아사셀이 죄의 선동자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대제사장이 모든 죄를 고백하는 것은 아사셀로 인하여 초래된 모든 죄에 대해서 그를 고소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곱째, 상호대응관계에 있는 레위기 16장 10절 하단과 30절은 사용된 용어들과 구문이 유사한데, 전자는 파멸되는 아사셀의 운명을 보여주는 반면, 후자는 정결케 되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운명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서로 극적인 대조를 나타내고 있다.

여덟째, '산 염소' 예식의 목적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든 죄를 '산 염소'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죄의 선동자 아사셀에게 보냄으로써 이스라엘 공동체가 죄로부터 정결케 되어 안전하게 거하는 데 있다. 결론적으로 아사셀은 야훼의 대적(大敵)인 사탄을 암시하는 존재라고 우리는 간주할 수 있다.

주제어 Keywords

레위기 16장, 산 염소 예식, 속죄일, 아사셀, 제비뽑기

Leviticus 16, the ceremony of a live goat, the day of atonement, Azazel, casting lots.

삼육대학교 | IP: 210.94.252.*** | Accessed 2018/12/21 11:37(KST)

참고문헌

김경열.『레위기의 신학과 해석』.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6.

왕대일. "아사셀 염소와 속죄의 날(레 16:6-10) - 그 해석학적 재고."「구약논단」19 (2005): 10-30.

이상란 · 정중호. "대속죄일과 아사셀."「구약논단」3 (1997): 5-24.

카일 · 델리취/김득중 옮김.『레위기』. 서울: 기독교문화출판사, 1983.

하틀리, 존/김경열 옮김.『레위기』. 서울: 솔로몬, 2006.

Adu-Gyamfi, Yaw. "The Live Goat Ritual in Leviticus 16." *Scriptura* 112 (2013): 1-10.

Boyd, Gregory A. *God at War: The Bible and Spiritual Conflict*. Downers Grove, Illinois: IVP Academic, 1997.

Carmichael, Calum. "The Origin of the Scapegoat Ritual." *Vetus Testamentum* 50 (2000): 167-182.

Dam, C. Van. "עזאזל." In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of Old Testament Theology & Exegesis*, edited by Willem A. VanGemeren, 1: 825-827. Grand Rapids, Michigan: Zondervan, 1997.

Dommershausen. "עזאזל." In *Theological Dictionary of Old Testament*, edited by G. Johannes Botterweck and Helmer Ringgren, 2: 450-456. Michigan: William B. Eerdmans Pub., 1975.

Douglas, Mary. "The Go-Away Goat." In *The Book of Leviticus: Composition and Reception*, edited by Rolf Rendtorff and Robert A. Kugler, 121-141. Leiden: Brill, 2003.

Gane, Roy E. *Cult and Character: Purification Offering, Day of Atonement and Theodicy*. Winona Lake, IN: Eisenbrauns, 2005.

_____. *Leviticus, Numbers*. NIVAC; Grand Rapids, MI: Zondervan, 2004.

Gilchrest, Eric. "For the Wages of Sin is Banishment: An Unexplored Substitutionary Motif in Leviticus 16 and the Ritual of the Scapegoat." *Evangelical Quarterly* 85 (2013): 36-51.

Grabbe, Lester. "The Scapegoat Tradition: A Study in Early Jewish Interpretation." *Journal for the Study of Judaism* 18 (1987): 152-167.

Ha, KyeSang. "Cultic Allusions in the Suffering Servant Poem(Isaiah 52:13-53:12)." Ph.D. dissertation, Andrews University, 2009.

Hanson, Paul D. "Rebellion in Heaven, Azazel, and Euhemeristic Heroes in 1 Enoch 6-11."

삼육대학교 | IP: 210.94.252.*** | Accessed 2018/12/21 11:37(KST)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96 (1977): 195-233.

Helm, Robert. "Azazel in Early Jewish Tradition." *Andrews University Seminary Studies* 32 (1994): 217-226.

Hodge, Zane D. "A Historical and Grammatical Examination of Azazel in Biblical and Extra-biblical Sources with Special Emphasis Given to Its Meaning with the Hebrew Preposition ל." Ph.D. diss., Mid-America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2004.

Kellogg, S. H. *The Book of Leviticus*. EB, London: Hodder and Stoughton, 1906.

Kiuchi, N. *The Purification Offering in the Priestly Literature: Its Meaning and Function*. JSOTSup 56.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87.

Koehler, Ludwig and Walter Baumgartner. "לְמַד," in *The Hebrew and Aramaic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Leiden: Brill Academic Pub., 1996.

Levine, Baruch A. *The JPS Torah Commentary: Leviticus*. The Jewish Publication Society, 1989.

Lindblom, Joh. "Lot-Casting in the Old Testament." *Vetus Testamentum* 12 (1962): 164-178.

Maccoby, Hyam. *Ritual & Morality: The Ritual Purity System and its Place in Judaism*.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1999.

Milgrom, Jacob. *Leviticus 1-16: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AB 3; New York: Doubleday, 1991.

Nickelsburg, George W. E. "Apocalyptic and Myth in 1 Enoch 6-11."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96 (1977): 383-405.

Noth, Martin. *Leviticus: A Commentary*. Old Testament Library. London: SCM Press LTD, 1977.

Pinker, Aaron. "A Goat to Go to Azazel." *The Journal of Hebrew Scriptures* 7 (2007): 1-25.

Rodriguez, Angel M. *Substitution in the Hebrew Cultus*. AUSDS 3. Berrien Springs, MI: Andrews University Press, 1979.

_____. "Leviticus 16: Its Literary Structure." *Andrews University Seminary Studies* 34 (1996): 269-286.

Schmid, H. H. "נוּחַל." In *Theological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edited by Ernst Jenni & Claus Westermann, 1: 310-312. Peabody, Mass.: Hendrickson, 1994.

Shea, William H. "Azazel in the Pseudepigrapha." *Journal of Adventist Theological Society* 13 (2002): 1-9.

_____. "Chiastic Structure of Leviticus," in *The Seventy Weeks, Leviticus, and the Nature of Prophecy*, vol. 3, edited by Frank B. Holbrook, 131-168. Washington D. C.: Biblical

삼육대학교 | IP: 210.94.252.*** | Accessed 2018/12/21 11:37(KST)

Research Institute, 1986.

Tawil, H. "Azazel, the Prince of the Steepe: A Comparative Study." *Zeitschrift für die alttestamentliche Wissenschaft* 92 (1980): 43-59.

The Targums of Onkelos and Jonathan ben Uzziel on the Pentateuch: with the fragments of the Jerusalem Targum from the Chaldee. Translated by J. W. Etheridge, First Published 1862.

Vaux, Roland de. *Studies in Old Testament Sacrifice*. Cardiff: University of Wales Press, 1964.

Walton, John H., Victor H. Matthews, and Mark W. Chavalas. *The IVP Bible Background Commentary: Old Testament*. Dow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2000.

Wright, David P. *The Disposal of Impurity: Elimination Rites in the Bible and in Hittite and Mesopotamian Literature*. SBLDS 101. Atlanta: Scholars Press, 1987.

Zatelli, Ida. "The Origin of the Biblical Scapegoat Ritual: The Evidence of Two Eblaite Texts." *Vetus Testamentum* 48 (1998): 254-263.

삼육대학교 | IP: 210.94.252.*** | Accessed 2018/12/21 11:37(KST)

Abstract

The Identity of Azazel Revisited: Centered on Leviticus 16

Choong Ryoel Lee, Ph.D. Candidate
Graduate Course of Theology
Sahmyook University

Kye Sang Ha, Ph.D.
Professor, Department of Theology
Sahmyook University

It has been thought that there is a limitation to clarify the identity of Azazel only with the Old Testament, since Azazel is mentioned just four times in the Old Testament, and that in Leviticus 16 only. Thus, there is a tendency for scholars to rely upon extra-biblical sources, neglecting to study the relevant texts of the Bible itself. This paper aims to clarify the identity of Azazel through a careful research on the text of Leviticus 16 itself where Azazel appears, and an intertextual interpretation of the text and the other closely related texts. With this goal in mind, we pursued this research from a synchronic/literary perspective, paying a close attention to the Hebrew text of the *BHS* (*Biblia hebraica stuttgartensia*).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recapitulated as follows.

삼육대학교 | IP: 210.94.252.*** | Accessed 2018/12/21 11:37(KST)

First, when looking through all the other cases of casting lots in the Old Testament, two lots are never given to the same identity, and thus Yahweh and Azazel are different identities.

Second, the most important fact in the thirty-five texts of the Old Testament where preposition *lᵉ* (לְ) is used in connection with *gôrāl* (גּוֹרָל), is that the objects of '*lᵉ*' never refer to a non-personality (including animals), but to a personality. Therefore, 'Azazel' of *la ʿᵃzāʾzēl* (לַעֲזָאזֵל) must be a personality.

Third, 'a live goat' is neither a sacrifice nor a sin offering, because in Leviticus 16 it is not expressed as a sin offering per se and there is no shedding of blood from it. The reason of the fact that Leviticus 16:5 mentions two goats as 'one sin offering' (singular) might be the possibility that they never knew before casting lots which goat would be selected for a sin offering .

Fourth, when the verb *nāśāʾ*(נָשָׂא) takes *ʿāwōn* (עָוֹן) as its object, the case of 'a goat for Azazel' takes the proposition *ʿal* (עַל) attached to a third person pronominal suffix. So Leviticus 16:22a does not say, "The goat shall bear all their iniquities" but "The goat shall bear all their iniquities on itself" (ESV), which signifies the uniqueness of 'a live goat' ceremony.

Fifth, not only because the people of Israel received forgiveness of sins all the year round, but also because in Leviticus 16:20a the cleansing of sanctuary has just been completed, the high priest's placing his hands on the head of 'a live goat' and confessing all sins cannot mean asking for forgiveness of sins. Considering that the deeds of the wicked are brought upon their heads (Ezek 9:10) and that to those

삼육대학교 | IP: 210.94.252.*** | Accessed 2018/12/21 11:37(KST)

who curse Yahweh the curse returns (Lev 24:14-15, 23), all sins' being confessed upon the head of a live goat and being sent to Azazel through the goat signifies that Azazel should be the instigator of sins. Therefore, the high priest's confessing all sins seems to be his accusation against Azazel for all sins.

Sixth, the latter half of Leviticus 16:10 and 16:30, which corresponds to each other, are very similar in terminology and syntax, and there is a striking contrast between them in that the former shows the doom of Azazel, whereas the latter the cleansing of the community of Israel.

Last but not least, the purpose of the ceremony of 'a live goat' is to ensure that the Israel community is cleansed of sins and stay safe by sending all their sins to Azazel, the instigator of sins through the medium of 'a live goat.' In conclusion, Azazel can be regarded as Satan, the archenemy of Yahweh.

• 투고접수일: 2017년 07월 03일
• 심사완료일: 2017년 08월 04일
• 게재확정일: 2017년 08월 24일

삼육대학교 | IP: 210.94.252.*** | Accessed 2018/12/21 11:37(KST)